ACC 펀니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
YOUR ACC, OUR ASIA

ACC FUNNY

2025.04.11(금)19:30
~12(토)14:00 18: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관람연령 1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www.accf.or.kr | 1899-5566

주최·주관 ACC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제작 공연제작소 작작 JAKJAK COMPANY

ACC 펀니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
초연 2주만에 매진된 **화제의 신작 뮤지컬**

"아픈 마음을 다루는데 시종 밝고 경쾌한 것은 이 뮤지컬의 가장 큰 미덕이다" - 조선일보 -
"관객은 '터벅터벅 느린 걸음으로 나아갈 힘'을 두 손에 쥐게 될 것이다" - 동아일보 -

ACCFUN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핑크빛 미래 대신 터벅터벅 나아갈 힘을 주는 이야기"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키키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룬다.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힘에 부치는 한심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수도, 혹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이다.

"너의 고통을, 너의 병을 인정한다. 키키"

토크 콘서트장. 오늘의 게스트 키키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신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임을 알게 된 이후 변증법적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키키.
오랜 연인과의 반복되는 이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에단이라는 상담사를 만나면서 자신의 병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간다.
그 결과 새로운 연애와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여전히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일은 쉽지 않다.

변증법적 치료를 수료한 키키는 경계성 인격장애 관련 워크숍에서 환자들의 가족들을 만나며
가까운 사람의 지지와 인정의 중요성을 느낀다. 키키는 엄마를 찾아간다.
하지만 엄마는 키키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키키와 엄마는 함께 눈물의 상담을 시작한다.

변증법적 치료를 한지 5년이 된 키키는 다시 관객 앞에 서서 말한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아니, 계속해서 연습 중이라고.

예매 바로가기

원안 키라 밴 겔더 '키라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제작**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극작 조윤지 **작곡** 김승민 **출연** 최태이, 김수정, 신진경, 문지수, 이민규, 전성혜